

- 주요 뉴스: 미국 주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저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
 - 러시아, 노드스트림1 가스공급은 예정대로 21일부터 재개. 공급량은 줄어들 전망
 - ECB 관계자,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p 인상 검토. 분절화 대응책 합의 예상
 - 중국 총리, 경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실적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2.8%], 달러화 약세[-0.6%],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 실적 등으로 6주래 최고 수준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및 은행관련주 강세 등으로 1.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원인
유로화가치는 0.8% 상승,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독일은 ECB 위원들의 0.5%p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6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05.1원, -8.3원) 0.6% 하락, 한국 CDS 하락

		7/19일	7/18일	전일대비			7/19일	7/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36.7	3,830.9	2.76%	국채 금리 10y	미국	3.02%	2.99%	4bp
	유럽	423.41	417.63	1.38%		독일	1.28%	1.22%	6bp
	중국	3,279.4	3,278.1	0.04%	CDS 5y	한국	51bp	52bp	-1bp
	일본	26,962	휴장	0.65%		중국	85bp	87bp	-2bp
	한국	2,371.0	2,375.3	-0.18%	위험 지표	EMBI+	-	486	-
환율	달러지수	106.68	107.37	-0.64%		VIX	24.50	25.30	-3.16%
	유로화	1.0227	1.0143	0.83%		WTI유	104.22	102.60	1.58%
	엔화	138.19	138.14	-0.04%	원자재	구리	329.2	334.8	-1.69%
	위안화	6.7442	6.7432	-0.01%		금	1,711.7	1,709.2	0.14%
	원화	1,313.4	1,317.4	0.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저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

- 미국 나스닥 지수(11,713.2, 3.1%)는 Amzon, Alphabet, MicroSoft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 강세 등으로 6/23일 이후 최대폭 상승. 다우(31,827.1, 2.4%) 및 S&P500(3936.7 +2.8%) 지수 역시 큰 폭의 오름세 시현
- 장난감 기업 Hasbro, 유정 관련 서비스 기업 Halliburton의 2/4분기 이익이 각각 예상치 상회 및 전년동기비 41% 증가 등을 기록. 이는 연준의 통화긴축이 당초 우려만큼 기업실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못했다는 안도감을 유발
- Netflix는 구독자 감소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급등(5.6%)했고, 시간외 거래에서 6% 이상 폭등. 한 때 7월 FOMC에서의 1.0%p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 0.75%p 인상이 유력하다는 평가 등도 주가 상승에 일조
- 또한 주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4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주가 저점 통과 가능성이 제기. 아울러 BofA 7월 설문조사 결과 기관투자자의 주식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도 저가매수의 기회로 인식
- Invesco의 Kristina Hooper는 주가의 저점 확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이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반면 Pictet Asset Management의 Luca Paolini는 향후 기업실적 전망의 대규모 하향조정 가능성과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예상 등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주가 상승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6월 주택착공, 9개월래 최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경기 둔화 등에 기인

- 해당 건수는 연환산 155.9만건으로 예상치(158만건) 하회. 금리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등이 원인. 최근 30년 모기지 금리는 평균 6%에 근접하여 연초(3.3%) 대비 2배 수준 근접. 6월 건설허가건수 역시 연환산 169만건으로 작년 9월 이후 최저

■ 러시아, 노드스트림1 가스공급은 예정대로 21일부터 재개. 공급량은 줄어들 전망

-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드스트림1 수리가 마무리되는 7/21일부터 가스는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될 수 있다고 발표. 다만 가스 공급 규모는 기존의 가능 수준인 일일 1억6000만입방미터를 하회할 것이라고 부연

■ ECB 관계자,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p 인상 검토. 분절화 대응책 합의 예상

- 2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7/21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0.5%p 인상을 고려. 또한 이탈리아와 같이 차입비용 증가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지원책도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
- 한편 ECB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게는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 및 예산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카지미르 총재 역시 분절화 관련 지원이 제공되어도 해당 국가의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영란은행 총재, 향후 1년 동안 500~1000억파운드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검토

- 베일리 총재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매각은 9월 통화정책회의 확인 투표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언. 한편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0.5%p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첨언

■ 영국 3~5월 실업률, 50년래 최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충격이 제한적임을 시사

- 해당 기간 실업률은 3.8%를 기록. 신규 취업자 수는 29.6만명으로 작년 6~8월 이후 최대.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영란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가계가 상당 기간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고 감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중국 총리, 경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 리커창 총리는 아직 향후 경기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 피력. 아울러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성장률을 일정 수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

■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대부분의 가계는 대출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는 상황

- 불록 부총재는 가계가 보유한 잉여 저축 규모가 2600억호주달러에 이르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 한편 이날 공개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0 현지시각 기준)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미국 6월 기준주택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에 영향 예상 - WSJ**
(Strong Dollar Fuels Pullback in Commodity Markets)
 - 최근 미국 달러화는 20년래 최고 수준.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은 러·우 전쟁 후 급등한 후 6월부터 하락세. 이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수요둔화 뿐 아니라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한 하방 압력 증가 등에 기인
 - 실제로 지난 6월 브렌트유 가격은 달러화 기준 59% 상승했으나 위안화와 엔화 기준으로는 각각 67%, 85% 상승. 연준의 금리인상은 '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단기간 내 달러화 약세의 전환은 기대난
 - 달러화 강세 효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이는 연준의 고물가 대응에 긍정적. 또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필요성도 낮출 소지
- **ECB,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사이에서 현명한 대응이 요구 - Financial Times**
(European economy: Lagarde wrestles with an 'impossible situation')
 - ECB는 '11년 이후 처음으로 7월 금리인상을 예고했으며, 유로존의 부채 문제 예방 등에도 초점을 맞출 전망.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차단 가능성 등으로 독일의 에너지 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 이와 같은 상황은 ECB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가중.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해결책. 하지만 과도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우려 및 취약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미국 달러화 강세, 맹목적인 투자 행태는 과도 - 블룸버그**
(The Dollar Bulls Are Looking Increasingly Like a Cult)
- **미국의 대중 관세 철회 검토, 현실화 시 국내 제조업 생산성 하락 등을 초래 - WSJ**
(Biden's China Tariff Cuts Would Hurt the U.S.)
- **중국의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향후 성장동력 약화로 연결 - 블룸버그**
(China's Economic Engine Is About to Start Shrinkin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